

WEBVTT

00:00:10.410 --> 00:00:11.186

안녕하십니까?

00:00:11.286 --> 00:00:12.678

역사에 미치다 서익환 선생님입니다.

00:00:12.778 --> 00:00:14.696

우리 39강이 되겠죠.

00:00:14.796 --> 00:00:17.637

민족문화수호운동에 대해서
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17.737 --> 00:00:19.804

206쪽 참고하면 될 거고요.

00:00:19.904 --> 00:00:22.443

민족문화수호운동에서는
뭐를 볼 거냐면

00:00:22.543 --> 00:00:26.962

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문화라고
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?

00:00:27.062 --> 00:00:28.949

역사야.

00:00:29.049 --> 00:00:32.916

민족이 어려울 때는 역사를
찾을 수밖에 없습니다.

00:00:33.016 --> 00:00:35.189

여러분, 우리가
고려시대 공부했잖아.

00:00:35.289 --> 00:00:37.602

고려 말에 원간섭기 기억나지?

00:00:37.702 --> 00:00:41.539

그때 역사 연구가 막
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거야.

00:00:41.639 --> 00:00:44.632

가장 대표적인 게
일연스님의 삼국유사.

00:00:44.732 --> 00:00:47.661

거기서 단군이야기를 다루잖아요,
우리 민족의 뿌리.

00:00:47.761 --> 00:00:52.695

그다음에 이승휴의 제왕운기,
이런 역사서들이 생겨나거든.

00:00:52.795 --> 00:00:56.979

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
어려운 시절이었죠.

00:00:57.079 --> 00:01:03.642

이때도 역사 연구가 끊임없이
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.

00:01:03.742 --> 00:01:10.145

그래서 민족문화수호에서는 일제강점기 역사
연구와 관련된 내용 하나 볼 거고.

00:01:10.245 --> 00:01:16.168

그다음에 두 번째 볼 거는
국어 연구가 되겠습니다.

00:01:16.268 --> 00:01:20.439

국어라고 하면 일제강점기
국어는 그거야.

00:01:20.539 --> 00:01:25.821

일본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의
조선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

00:01:25.921 --> 00:01:27.376

이것도 좀 비극이지.

00:01:27.476 --> 00:01:30.792

조선어, 제2외국어처럼
불리는 거잖아.

00:01:30.892 --> 00:01:34.436

이거 살펴보고 그다음에 종교에
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1:34.536 --> 00:01:36.420

종교는 많죠.

00:01:36.520 --> 00:01:41.640

불교, 개신교, 천주교,
원불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.

00:01:41.740 --> 00:01:45.795

그다음에 천도교, 대종교
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1:45.895 --> 00:01:48.036

민족문화수호운동 이렇게 보고

00:01:48.136 --> 00:01:53.478

그다음에 국외 동포들의 생활에
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.

00:01:53.578 --> 00:02:00.910

그거는 우리 핵심 한국사를
보시면 214쪽이야.

00:02:01.010 --> 00:02:06.750

1910년대부터 해외 동포들은
어디에 거주를 하면서

00:02:06.850 --> 00:02:13.054

그리고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도
살펴보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.

00:02:13.154 --> 00:02:17.609
그러면 또 판서를 해보도록 할게요.

00:02:17.709 --> 00:02:22.609
판서 하면 재밌기는 해,
선생님이 심심하지가 않아요.

00:02:22.709 --> 00:02:30.016
예전에는 맨날 판서로 진행하다가
요즘은 PPT를 많이 쓰죠.

00:02:30.116 --> 00:02:34.430
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
재미가 없어요.

00:02:34.530 --> 00:02:38.239
그러면 볼게요, 민족문화수호운동.

00:02:39.236 --> 00:02:44.814
일제강점기에 일어난
민족문화수호운동이야.

00:02:44.914 --> 00:02:52.358
그 첫 번째, 먼저 역사
연구가 되겠습니다.

00:02:52.458 --> 00:02:54.327
국사연구죠.

00:02:54.427 --> 00:03:01.847
여러분, 우리가 일제강점 직전까지는
신채호 선생, 박은식 선생 등이

00:03:01.947 --> 00:03:09.493
외국흥망사나 혹은 우리 위인전,
영웅전 편찬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.

00:03:09.593 --> 00:03:14.169
그리고 1908년에 독사신론,
신채호 선생이야.

00:03:14.269 --> 00:03:18.874
이 신채호 선생은 독사신론에서
그 나라 역사는

00:03:19.009 --> 00:03:22.173
그 나라 민족이 써야
된다고 이야기를 하는

00:03:22.273 --> 00:03:25.938
민족주의사학을 제창하기도 합니다.

00:03:26.038 --> 00:03:30.663
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역사
연구가 힘들었을 거 아니니.

00:03:30.763 --> 00:03:34.049
1910년대는 무단통치이기 때문에.

00:03:34.149 --> 00:03:39.976
그러면서 1920, 30년에 다시 활발한

역사 연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.

00:03:40.076 --> 00:03:45.553
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일련의 역사
연구와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할게요.

00:03:45.653 --> 00:03:56.349
먼저 이 역사와 관련돼서는 봐야
되는 게 민족주의사학입니다.

00:03:57.344 --> 00:04:01.246
이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.

00:04:01.346 --> 00:04:06.830
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이
민족주의사학과 대비될 수 있는

00:04:06.930 --> 00:04:09.239
식민사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.

00:04:09.339 --> 00:04:14.664
이 역사 연구와 관련돼서
식민사관을 먼저 살펴볼게요.

00:04:14.764 --> 00:04:17.757
그게 순서에 맞겠네.

00:04:21.230 --> 00:04:23.424
이 식민사관이란 무엇인가.

00:04:23.524 --> 00:04:28.540
일본이 우리나라 역사책을 펴는 거예요.
희한하지?

00:04:28.640 --> 00:04:31.915
우리나라 역사책을
일본애들이 펴는 거야.

00:04:32.015 --> 00:04:36.302
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
1915년, 나중에 적어드릴게요.

00:04:36.402 --> 00:04:44.795
1915년에 박은식 선생이
한국통사라는 역사책을 완성합니다.

00:04:44.895 --> 00:04:47.683
1915년에 중국에서 한국통사야.

00:04:47.783 --> 00:04:50.590
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.

00:04:50.690 --> 00:04:53.625
그러면 들어오자마자
베스트셀러가 됐겠네.

00:04:53.725 --> 00:04:58.710
박은식 선생은 민족주의사학자입니다.

00:04:58.810 --> 00:05:01.575
그리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

2대 대통령이기도 했죠.

00:05:01.675 --> 00:05:08.914

이거를 보고 일본 애들이
충격을 먹은 거야.

00:05:09.014 --> 00:05:13.166

그래서 앞으로 조선의 역사는
일본이 만들 거야.

00:05:13.266 --> 00:05:15.487

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.

00:05:15.587 --> 00:05:19.936

그러면 역사서를 편찬하는 데도
늘 관점이 들어가 있거든.

00:05:20.036 --> 00:05:23.853

그 관점을 우리는 사관이라고
이야기를 하지.

00:05:23.953 --> 00:05:28.178

그러면 이 식민사관, 일본이 조선의
역사를 편찬하는 데는 있어서

00:05:28.278 --> 00:05:30.084

중요한 사관은 무엇이었는가.

00:05:30.184 --> 00:05:33.048

세 가지가 있습니다.

00:05:33.148 --> 00:05:37.095

하나가 타율성 이론이야.

00:05:40.873 --> 00:05:47.855

그다음에 두 번째가
당파성 이론입니다.

00:05:47.955 --> 00:05:54.765

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메인이
될 수 있는 정체성 이론이야.

00:05:54.865 --> 00:05:58.738

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
식민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

00:05:58.838 --> 00:06:01.162

먼저 타율성 이론입니다.

00:06:01.262 --> 00:06:07.087

이 타율성 이론을 뭐라고도
이야기하냐면 반도성 이론이라고도 해.

00:06:07.187 --> 00:06:13.945

우리 한반도는 어떻게
구성돼 있냐면,

00:06:14.045 --> 00:06:17.542

반도국가지, 3면이 바다로
둘러싸여 있습니다.

00:06:17.642 --> 00:06:21.582

그리고 옆에는 이제 해양세력인
일본이 있다는 거야.

00:06:21.682 --> 00:06:24.574

일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.

00:06:24.674 --> 00:06:30.834

너네 조선은 독립을 이룰
수가 없어, 라는 겁니다.

00:06:30.934 --> 00:06:33.974

조선은 왜 독립을 이룰 수 없는가.

00:06:34.074 --> 00:06:35.177

이거 때문이라는 거지.

00:06:35.277 --> 00:06:42.854

너희들은 반도국가이기 때문에
해양세력은 늘 올라오려고 하고

00:06:42.954 --> 00:06:45.574

대륙에서는 내려오려고 한다.

00:06:45.674 --> 00:06:50.011

그래서 너희들의 운명은 너희들이
개척할 수 있는 게 아니다.

00:06:50.111 --> 00:06:54.278

그게 너희들의 숙명이다.

00:06:54.378 --> 00:06:55.583

이게 타율성 이론입니다.

00:06:55.683 --> 00:07:00.664

조선의 역사는 너희들만으로는
굴러갈 수가 없다는 거지.

00:07:00.764 --> 00:07:04.337

주변국에 의해서 굴러갈 수
있는데 조선의 역사이다.

00:07:04.437 --> 00:07:05.578

왜? 너희들은 반도니까.

00:07:05.678 --> 00:07:08.075

이게 타율성 이론이야.

00:07:08.175 --> 00:07:09.835

그런데 보세요.

00:07:09.935 --> 00:07:14.284

반도가 일본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
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?

00:07:14.384 --> 00:07:16.132

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
될 거 아니니.

00:07:16.232 --> 00:07:19.749

반도이기 때문에

해양으로 나가기도 쉽고

00:07:19.849 --> 00:07:22.412

대륙으로 올라가기도 쉽다.

00:07:22.512 --> 00:07:26.358

이렇게 우리는 식민사관을 반박하는 거야.
됐니?

00:07:26.458 --> 00:07:29.619

그런데 어떤 학자가
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.

00:07:29.719 --> 00:07:32.685

식민사관 타율성 이론을
깼다고 하면서

00:07:32.785 --> 00:07:38.265

아니다, 반도국가로 전 세계를
호령했던 대제국을 만든 애들이 있다.

00:07:38.365 --> 00:07:43.692

그게 반도국가인 이탈리아
반도죠, 로마다.

00:07:43.792 --> 00:07:48.897

로마는 반도국가임에도
불구하고 대제국을 건설했다.

00:07:48.997 --> 00:07:51.460

이렇게 해서 타율성
이론을 깨려고 했어요.

00:07:51.560 --> 00:07:54.230

그런데 이 학자 거의
매장당했습니다.

00:07:54.330 --> 00:07:56.822

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거 같지.

00:07:56.922 --> 00:07:58.403

학문은 이렇게 가면 안 돼.

00:07:58.503 --> 00:08:01.485

그러면 일본 애들이
뭐라고 한 줄 아니?

00:08:01.585 --> 00:08:06.990

아니,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
이렇게 대외진출을 많이 하고

00:08:07.090 --> 00:08:12.214

대제국으로 만들 수
있다면 왜 못했냐.

00:08:12.314 --> 00:08:16.578

조선인들이 무능해서 그러네,
이렇게 가버리는 거야.

00:08:16.678 --> 00:08:19.408

그래서 오히려 더

덤터기를 써버린 거예요.

00:08:19.508 --> 00:08:21.376

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
안 된다는 거지.

00:08:21.476 --> 00:08:23.377

우리는 fact를 가지고
와야 되는 거야.

00:08:23.477 --> 00:08:24.394

그 fact가 뭐냐.

00:08:24.494 --> 00:08:26.608

우리는 고구려, 백제,
신라 보세요.

00:08:26.708 --> 00:08:28.641

보통 1천 년이야.

00:08:28.741 --> 00:08:30.994

물론 백제가 1천
년에 못 미치지만.

00:08:31.094 --> 00:08:37.849

이렇게 계속 우리 한 민족은
이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

00:08:37.949 --> 00:08:41.536

나라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.

00:08:41.636 --> 00:08:45.806

주변국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
침략도 받기는 했지만

00:08:45.906 --> 00:08:47.778

다 물리쳐냈다는 거지.

00:08:47.878 --> 00:08:53.724

그래서 꼭 주변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
우리 민족이 갈팡질팡하지는 않는다.

00:08:53.824 --> 00:08:55.167

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야.

00:08:55.267 --> 00:08:57.355

어쨌든 식민사관의 타율성 이론이야.

00:08:57.455 --> 00:08:59.876

그다음 당파성 이론은 알지?

00:08:59.976 --> 00:09:02.488

이런 이야기 들어봤니?
어른들이 가끔 이야기한다.

00:09:02.588 --> 00:09:07.225

왜냐하면 그게 식민지
교육이어서 그래요.

00:09:07.325 --> 00:09:12.333

조선인들은 3명만 만나면

싸워, 패거리 나뉘서.

00:09:12.433 --> 00:09:13.547
이런 것들.

00:09:13.647 --> 00:09:17.449
조선 사람은 그냥 편 나뉘서
싸우는 게 일이야.

00:09:17.549 --> 00:09:18.550
그게 당파성 이론이야.

00:09:18.650 --> 00:09:20.690
그래서 너희들은 늘
분열이 돼 있어.

00:09:20.790 --> 00:09:25.024
이게 일본이 주입시킨
식민사관입니다.

00:09:26.089 --> 00:09:31.076
여러분, 물론 집단이
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.

00:09:31.176 --> 00:09:32.554
편을 나누고 싸울 수 있어.

00:09:32.654 --> 00:09:35.129
그게 우리만 해당되는 일이니?

00:09:35.229 --> 00:09:39.068
미국은 없니? 영국은 없니? 일본은 없니?
다 있단다.

00:09:39.168 --> 00:09:41.382
그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 거지.

00:09:41.482 --> 00:09:46.237
그래서 이거로 비판하는
거는 말도 안 돼.

00:09:46.337 --> 00:09:47.704
그다음에 보세요.

00:09:47.804 --> 00:09:52.857
식민지 교육이 얼마나
무서운지 아니?

00:09:52.957 --> 00:10:00.473
만약에 1920년 생입니다.

00:10:00.573 --> 00:10:04.602
보통 많이 돌아가셨죠.

00:10:04.702 --> 00:10:11.515
그러면 한 10살이 됐을
때는 1930년대네.

00:10:11.615 --> 00:10:15.856
무슨 교육을 받고 있니?
민족말살정책을 받고 있네.

00:10:15.956 --> 00:10:18.495
식민지 교육을 받고 있죠.

00:10:18.595 --> 00:10:23.211
그리고 1945년이 됐을 때
몇 살이 됩니까?

00:10:23.311 --> 00:10:27.471
25살이 됐어.

00:10:27.571 --> 00:10:30.237
교육을 잘 받았습시다, 식민지
교육을 잘 받았어요.

00:10:30.337 --> 00:10:33.427
그리고 이제 혼란기였잖아,
해방 이후.

00:10:33.527 --> 00:10:37.572
그래서 이 사람들이
또 학자가 되든지

00:10:37.672 --> 00:10:44.069
혹은 정치를 하든지 막 하는 거야,
사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.

00:10:44.169 --> 00:10:46.860
이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
받았다고, 지금?

00:10:46.960 --> 00:10:48.893
식민지 교육을 받은 거예요.

00:10:48.993 --> 00:10:51.167
그리고 이렇게 식민지
교육을 받았어.

00:10:51.267 --> 00:10:54.186
만약에 학자야, 아니면
학교 선생님이야.

00:10:54.286 --> 00:10:56.056
식민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.

00:10:56.156 --> 00:10:59.624
이 사람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니.

00:11:01.076 --> 00:11:05.528
식민지 교육을 받은
사람들한테서 배운 거야.

00:11:05.628 --> 00:11:10.302
그러면 이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
연관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.

00:11:10.402 --> 00:11:15.127
의식을 심어놓게 되는 거지.

00:11:15.227 --> 00:11:19.900
그래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

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.

00:11:20.000 --> 00:11:22.661

조선인들은 편 나누고
싸우는 게 일이야.

00:11:22.761 --> 00:11:24.384

이게 이때 교육받은 거거든.

00:11:24.484 --> 00:11:31.047

그래서 실제 1945년 해방이 되면서
일본 총독이 일본으로 떠나갈 거 아니니.

00:11:31.147 --> 00:11:35.458

떠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.

00:11:35.558 --> 00:11:39.544

너희들이 앞으로 찬란한
조선의 문화를 일으키기에는

00:11:39.644 --> 00:11:43.021

100년이라는 시간이
필요할 것이다.

00:11:43.121 --> 00:11:49.120

제2의, 제3의 내가 나올
것이다, 조선인들 중에서.

00:11:49.220 --> 00:11:52.114

왜냐하면 그게 식민지 교육이었다.

00:11:52.214 --> 00:11:53.047

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

00:11:53.147 --> 00:11:58.333

정말 무서운 용어가 아닐 수 없죠.

00:11:58.433 --> 00:12:01.459

현대 사회에 만연한 거예요.

00:12:01.559 --> 00:12:06.868

그런데 선생님 보기에 이제는 거의
소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
00:12:06.968 --> 00:12:11.028

이 식민지 교육의 잔재들이.

00:12:11.128 --> 00:12:13.895

저게 당파성 이론,
너네는 맨날 싸운다.

00:12:13.995 --> 00:12:16.265

그러면 이 정체성 이론은 뭐냐.

00:12:16.365 --> 00:12:19.091

이 정체성 이론이 메인입니다.

00:12:19.191 --> 00:12:22.320

한번 볼게요, 정체성 이론.

00:12:23.047 --> 00:12:26.591

애네들은 이래요.

00:12:32.451 --> 00:12:36.585
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.

00:12:36.703 --> 00:12:38.155
보편적으로 흘러가는 거.

00:12:38.255 --> 00:12:41.935
고대사회,

00:12:42.035 --> 00:12:47.331
그다음에 크게 나누면 중세사회,

00:12:47.431 --> 00:12:49.648
그냥 크게 나누는 거야.

00:12:49.748 --> 00:12:51.697
약간 선생님이 의역을 해줄게요.

00:12:51.797 --> 00:12:53.782
근대사회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.

00:12:53.882 --> 00:12:59.124
이 당시는 무슨 사회였냐면
근대사회였습니다.

00:12:59.224 --> 00:13:03.561
지금 현재 여기 위치에 있는 거야.

00:13:03.661 --> 00:13:06.527
그런데 고대사회의 특징이 뭐냐.

00:13:06.627 --> 00:13:11.239
이거는 노예제 사회,
노예가 있는 사회.

00:13:11.339 --> 00:13:12.780
그러면 중세는 뭐냐.

00:13:12.880 --> 00:13:18.897
무인들에 의한 봉건제도,
지방분권제도가 된다는 거지.

00:13:18.997 --> 00:13:24.392
그리고 근대는 자본주의를
이야기합니다.

00:13:24.492 --> 00:13:25.378
이렇게 흘러가는 거야.

00:13:25.478 --> 00:13:28.932
물론 동양적으로는 여기
근세가 있기는 있습니다.

00:13:29.032 --> 00:13:31.918
그런데 됐어.

00:13:32.018 --> 00:13:34.476
세계의 역사는 이렇게
고대 노예제를 거쳐서

00:13:34.576 --> 00:13:36.979

중세 무인들에 의한 봉건제도,

00:13:37.079 --> 00:13:42.625

그다음에 근대 자본주의로 흘러가는
게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.

00:13:42.725 --> 00:13:49.119

그런데 일본은 조선을
어떤 식으로 평가했냐.

00:13:49.219 --> 00:13:50.632

여기야.

00:13:54.877 --> 00:14:00.717

너희들 조선은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
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.

00:14:00.817 --> 00:14:02.512

정말 자존심 상하죠?

00:14:02.612 --> 00:14:04.735

그리고 지금 현재는 뭘데?

00:14:04.835 --> 00:14:06.433

일본 근대 자본주의야.

00:14:06.533 --> 00:14:10.472

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

00:14:10.572 --> 00:14:16.241

너희들을 중세를 거치지
않게 하고 어디로 보냈다?

00:14:16.341 --> 00:14:17.951

이렇게.

00:14:18.051 --> 00:14:21.716

근대 자본주의로
이양시켜줬다는 거지.

00:14:21.816 --> 00:14:27.039

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얼마나
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냐.

00:14:27.139 --> 00:14:28.249

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

00:14:28.349 --> 00:14:30.736

그게 정체성 이론이야.

00:14:30.836 --> 00:14:34.569

너희들은 여기 멈춰 있었기 때문에
우리가 끌어내준 것이다.

00:14:34.669 --> 00:14:37.251

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
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?

00:14:37.351 --> 00:14:40.745

식민지를 만들어서
근대사회로 보냈다.

00:14:40.845 --> 00:14:47.230
이거를 줄여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
이야기를 하는 거야.

00:14:47.330 --> 00:14:50.092
정말 말도 안 되는
일이 벌어집니다.

00:14:50.192 --> 00:14:52.048
이게 식민사관의 메인입니다.

00:14:52.148 --> 00:14:57.404
너희들은 무능하다,
어리석다는 거지.

00:14:57.504 --> 00:15:02.227
그래서 가끔 일제시대를
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

00:15:02.327 --> 00:15:03.816
영화 대사 같은 데 있잖아.

00:15:03.916 --> 00:15:07.881
이 미개한 조센진,
이렇게 이야기하잖아.

00:15:07.981 --> 00:15:10.375
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,
정체성 이론에서.

00:15:10.475 --> 00:15:13.322
봐, 미개하잖아.

00:15:13.422 --> 00:15:15.767
일본 애들이 이렇게
평가를 했기 때문에.

00:15:15.867 --> 00:15:21.556
그래서 선생님은 그 용어를
좋아하지 않습니다, 미개하다.

00:15:21.656 --> 00:15:24.955
이 미개하다는 용어를
쓰는 애들이 있으면

00:15:25.055 --> 00:15:30.098
전부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서
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돼.

00:15:30.198 --> 00:15:35.258
우리가 흔히 미개하다는
용어를 잘 쓰지 않아요.

00:15:35.358 --> 00:15:37.177
있어요, 상당히 많습니다.

00:15:37.277 --> 00:15:38.520
이게 식민지 근대화야.

00:15:38.620 --> 00:15:42.294

그리고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의
예찬론자들이 많다는 거야.

00:15:42.394 --> 00:15:44.375

그들이 또 기회주의자들이지.

00:15:44.475 --> 00:15:45.730

일본 얼마나 땡큐야.

00:15:45.830 --> 00:15:49.706

우리 철도도 놔주고 다
했잖아, 이렇게.

00:15:49.806 --> 00:15:52.463

정말 말도 안 되는
일이 벌어진 거야.

00:15:52.563 --> 00:15:55.725

핵심은 타율성 이론 아니고
당파성 이론 아니고

00:15:55.825 --> 00:15:57.352

핵심은 뭘 깨는 데 있다?

00:15:57.452 --> 00:16:02.138

우리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
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를

00:16:02.238 --> 00:16:03.866

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야.

00:16:03.966 --> 00:16:06.621

이 식민사관을 격파하려면.

00:16:06.721 --> 00:16:08.432

됐니?

00:16:08.532 --> 00:16:11.042

이거는 조금 이따 격파하는
모습을 보여줄게요.

00:16:11.142 --> 00:16:17.054

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렇게 세 가지
타율성, 당파성, 정체성 이론을 가지고

00:16:17.154 --> 00:16:20.191

우리 역사를 왜곡시키고자
노력했다는 거야.

00:16:20.291 --> 00:16:22.085

그러면 여기에 대항을 해야 되겠죠.

00:16:22.185 --> 00:16:24.494

먼저 나오는 게
민족주의사학이 됩니다.

00:16:24.594 --> 00:16:32.801

이 민족주의사학은
여러 분들이 있죠.

00:16:32.901 --> 00:16:37.167
먼저 1세대 민족주의사학입니다.

00:16:37.267 --> 00:16:40.613
신채호 선생.

00:16:41.208 --> 00:16:44.677
그다음에 박은식 선생이에요.

00:16:46.393 --> 00:16:51.374
이 신채호 선생은 책이
있는데 조선상고사.

00:16:55.093 --> 00:17:03.662
그다음에 조선사연구초를 저술합니다.

00:17:03.762 --> 00:17:10.146
물론 1908년에 독사신문에서
민족주의사학을 제창하기는 하지만.

00:17:10.246 --> 00:17:11.490
이 민족주의사학은 뭐냐?

00:17:11.590 --> 00:17:14.488
우리 민족은 바보가
아니다, 그거잖아.

00:17:14.588 --> 00:17:20.407
그러면 조선상고사에서는
뭐라고 이야기했냐면

00:17:20.507 --> 00:17:21.589
이거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.

00:17:21.689 --> 00:17:27.195
역사는 아와 비아와의
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

00:17:27.295 --> 00:17:28.431
이 아 자가 뭐냐?

00:17:28.531 --> 00:17:31.753
나와 비아, 내가
아닌 너의 투쟁이다.

00:17:31.853 --> 00:17:33.283
그러면 돌려볼게요.

00:17:33.383 --> 00:17:39.524
조선인과 그다음에 일본, 이렇게
투쟁의 결과물이 역사이다.

00:17:39.624 --> 00:17:40.367
이거를 이야기하고요.

00:17:40.467 --> 00:17:44.621
그다음에 조선사연구초에서는 그
유명한 그게 나오는 거야.

00:17:44.721 --> 00:17:49.597

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조선
1천 년 내 최대 사건이다.

00:17:49.697 --> 00:17:50.440
이게 나오는 거지.

00:17:50.540 --> 00:17:54.782
살짝 이야기했었는데 우리는
그런 사상이 있었어.

00:17:54.882 --> 00:17:56.206
낭가사상이 있습니다.

00:17:56.306 --> 00:18:01.026
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나오면 늘
나오는 사상이 낭가사상이야.

00:18:01.126 --> 00:18:03.660
잊지 마십시오.

00:18:03.760 --> 00:18:07.026
우리의 전통문화라고 보시면
됩니다, 진취적인 기상이야.

00:18:07.126 --> 00:18:13.829
전통적으로 진취적인 기상은 신채호 선생이
보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

00:18:13.929 --> 00:18:18.955
고대사회에서도 이런
것들, 고조선 있지.

00:18:19.055 --> 00:18:21.269
고조선에서는 홍익인간.

00:18:21.369 --> 00:18:24.663
그 옛날에 널리 사람을 이롭게
한다, 진취적인 기상입니다.

00:18:24.763 --> 00:18:29.502
그다음에 고구려에는 선배사상.

00:18:29.602 --> 00:18:33.208
그다음에 신라에는 화랑도.

00:18:33.308 --> 00:18:35.506
이런 진취적인 기상들이
있었다는 거야.

00:18:35.606 --> 00:18:36.425
홍익인간은 됐고요.

00:18:36.525 --> 00:18:38.333
고구려 선배사상은 뭐냐.

00:18:38.433 --> 00:18:44.458
활쏘기 1인자, 그다음에 학문경연
1인자에게 극진한 대접이야.

00:18:49.867 --> 00:18:54.200
여러분, 뭐를 더 중시합니까?

00:18:55.151 --> 00:19:01.069

지금 크고 있는 친구들이니까
이거를 더 중시하지 않겠습니까?

00:19:01.169 --> 00:19:03.504

그런데 이거 중시 안 하니?
하잖아.

00:19:03.604 --> 00:19:14.212

여러분도 얘기 때 옆에 애가,
돈 내고 애기들 뛰어 노는 데 있잖아.

00:19:14.312 --> 00:19:16.877

그런 데 가면, 선생님
조카도 많이 가는 데인데.

00:19:16.977 --> 00:19:18.455

그런 데 가면 옆의
애가 모르고 쳤어.

00:19:18.555 --> 00:19:22.203

그러면 너 몇 살이야?
이렇게 나오잖아.

00:19:22.303 --> 00:19:25.441

이 고구려 선배사상은
나이 필요 없어.

00:19:25.541 --> 00:19:30.020

능력에 대한 극진한 대접입니다.

00:19:30.820 --> 00:19:38.065

화랑도, 진골귀족 자식들과 평민
자식들이 어우러지는 진취적인 기상이지.

00:19:38.165 --> 00:19:40.199

그러다가 뭐로 넘어갔냐?

00:19:40.299 --> 00:19:47.076

고려 시대로 가면 묘청의
서경천도운동이 있다.

00:19:47.176 --> 00:19:51.722

이거는 만주로 나가자, 그리고
우리 것을 지키자는 움직임이었다.

00:19:51.822 --> 00:19:59.741

하지만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
김부식에게 제압을 당하고 나서

00:19:59.841 --> 00:20:03.120

완전히 유교 중심의
국가로 넘어가버렸다.

00:20:03.220 --> 00:20:07.979

유교에서 중요한 거는 나이거든.

00:20:08.079 --> 00:20:14.458

지금도 우리는 나이를 묻지
말아야 돼, 알고 보면.

00:20:14.558 --> 00:20:16.112
나이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.

00:20:16.212 --> 00:20:19.198
나이가 무슨 상관이니,
우리만 그렇게 묻잖아.

00:20:19.298 --> 00:20:23.252
외국에서는 나이 몇 살이에요?
하면 엄청난 실례라면서요?

00:20:23.352 --> 00:20:25.515
결혼했어요?
이게 엄청난 실례라면서요.

00:20:25.615 --> 00:20:27.120
이거 묻지 말아야 돼.

00:20:27.220 --> 00:20:32.621
그래서 이런 나이,
명분 이런 것들 때문에

00:20:32.721 --> 00:20:35.461
지금 일제강점기로 넘어왔다는 거죠.

00:20:35.561 --> 00:20:38.945
만약에 묘청의
서경천도운동이 성공했다면

00:20:39.045 --> 00:20:42.820
진취적 기상이 계속
이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.

00:20:42.920 --> 00:20:46.396
그래서 조선 1천 년 내 최대
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

00:20:46.496 --> 00:20:48.343
신채호 선생, 낭가사상이야.

00:20:48.443 --> 00:20:51.105
두 번째, 박은식 선생입니다.

00:20:51.205 --> 00:20:54.420
박은식 선생은 일단 한국통사.

00:20:54.520 --> 00:20:56.964
아까 이야기했었죠, 한국통사.

00:20:57.064 --> 00:21:00.092
이게 1915년이야.

00:21:00.192 --> 00:21:02.941
베스트셀러가 돼버리게 됩니다.

00:21:03.041 --> 00:21:13.636
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책을 만드는데
이후에 한국독립운동지혈사야.

00:21:13.736 --> 00:21:16.335

이거는 안 외워도 돼.

00:21:16.435 --> 00:21:20.026

그러면서 이 박은식 선생은
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

00:21:20.126 --> 00:21:31.478

나라는 형, 역사는 정신이다.

00:21:33.883 --> 00:21:34.792

무슨 뜻이겠니?

00:21:34.892 --> 00:21:38.383

지금 일제강점기예요, 나라가 있어 없어?
없어.

00:21:38.483 --> 00:21:40.838

민족만 남아 있는 거예요.

00:21:40.938 --> 00:21:44.424

그러니까 나라의 형태일 뿐이다.

00:21:44.524 --> 00:21:46.358

역사는 정신이다.

00:21:46.458 --> 00:21:51.557

정신만 살아 있으면 빼앗긴 형태는
그냥 찾을 수 있다는 거지.

00:21:51.657 --> 00:21:54.611

그래서 역사를 강조하는 거야.

00:21:54.711 --> 00:21:59.068

지금 여러분처럼 한국사 무시하고
수능 때 무시하고, 안 된다니까.

00:21:59.168 --> 00:22:00.116

우리 것이라니까.

00:22:00.216 --> 00:22:03.253

선생님이 그래서 좀 깊숙하게
이야기를 해주잖아.

00:22:03.382 --> 00:22:11.098

그래서 뭐를 강조하냐면 박은식
선생은 정신을 강조합니다.

00:22:11.198 --> 00:22:15.589

그러니까 역사 연구를 하면 결국
빼앗긴 나라도 찾을 수 있다는 거지.

00:22:15.689 --> 00:22:16.910

이게 박은식 선생입니다.

00:22:17.010 --> 00:22:20.995

이 두 분이 1세대
민족주의사학자라고 보면 됩니다.

00:22:21.095 --> 00:22:28.121

그리고 이 1세대 민족주의를
지나면서 1930년대가 돼.

00:22:28.221 --> 00:22:31.417
그러면서 2세대
민족주의사학자들이 나타나는데

00:22:31.517 --> 00:22:35.750
그 사람이 정인보입니다.

00:22:35.850 --> 00:22:42.401
이 정인보 선생은 우리
민족의 얼을 강조합니다.

00:22:47.395 --> 00:22:49.788
얼이 뭔지 알죠?

00:22:49.888 --> 00:22:51.997
우리 민족의 얼, 알잖아.

00:22:52.097 --> 00:22:54.009
그러면 영어로 한번 번역해볼까?

00:22:54.109 --> 00:22:57.053
얼, 우리 민족의 소울?

00:22:57.153 --> 00:23:02.728
이래서 우리나라 문학작품이 해외에
나가서 상을 타기가 힘든 거예요.

00:23:02.828 --> 00:23:05.489
아니 얼이랑 소울이 비슷해?

00:23:05.589 --> 00:23:10.736
다르잖아, 의미가 다르잖아요.

00:23:10.836 --> 00:23:15.114
명확하게 설명은 불가하지만 우리는
문화적인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.

00:23:15.214 --> 00:23:16.747
여러분과 나는 다 아는 거지.

00:23:16.847 --> 00:23:19.585
그래서 우리 조선 민족의
얼을 강조한다.

00:23:19.685 --> 00:23:22.577
이게 정인보 선생입니다.

00:23:22.677 --> 00:23:30.216
그다음에 또 한 분이
30년대의 문일평.

00:23:30.316 --> 00:23:35.247
문일평은 조선심을 강조해요.

00:23:40.627 --> 00:23:44.075
이분들이 민족주의사학자가 됩니다.

00:23:44.175 --> 00:23:44.744
됐니?

00:23:44.844 --> 00:23:47.429

그런데 보세요.

00:23:47.529 --> 00:23:49.400

이 민족주의사학 좋아, 좋은데

00:23:49.500 --> 00:23:53.267

타율성 이론, 당파성 이론,
정체성 이론이 있는데

00:23:53.367 --> 00:23:57.004

이런 식민사관에 대해서 메인이 뭐야?
정체성 이론이죠.

00:23:57.104 --> 00:24:01.497

이 정체성 이론을 깨부실
수가 없다는 거야.

00:24:01.597 --> 00:24:02.311

무슨 뜻이냐?

00:24:02.411 --> 00:24:04.604

우리 민족의 역사는 찬란하다.

00:24:04.704 --> 00:24:07.439

이렇게 들어가는 게
민족주의사학이거든.

00:24:07.539 --> 00:24:12.338

정체성 이론, 과학적으로
사실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.

00:24:12.438 --> 00:24:15.564

그런데 우리 민족의 역사는 찬란하다,
우리는 이런 정신이 있다.

00:24:15.664 --> 00:24:20.281

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
민족주의사학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.

00:24:20.381 --> 00:24:27.102

일본의 정체성 이론을 격파할
수가 없었다는 거지.

00:24:27.202 --> 00:24:30.364

그래서 격파를 해야 되겠지.

00:24:30.464 --> 00:24:37.823

그게 뭐냐면 일본의 정체성 이론을
격파하는 역사 연구가 나온 거야.

00:24:37.923 --> 00:24:41.676

그게 사회경제사학입니다.

00:24:41.776 --> 00:24:47.364

사회경제사학이야.

00:24:47.464 --> 00:24:55.814

이 사회경제사학은 누가
이끌었냐, 백남운입니다.

00:24:55.914 --> 00:24:58.734

그러면 백남운부터 소개를
해야 되겠네요.

00:24:58.834 --> 00:25:02.120

이 백남운은 사회주의 연구가야.

00:25:02.220 --> 00:25:07.046

한마디로 사회주의를 과학 시스템으로
만든 사람이 여러분, 들어봤나?

00:25:07.146 --> 00:25:09.061

마르크스라고.

00:25:09.161 --> 00:25:12.199

마르크스 연구가야.

00:25:12.299 --> 00:25:16.481

이 백남운은 마르크스 연구가입니다.

00:25:16.581 --> 00:25:20.122

그래서 이 마르크스에
유물사관이 있거든.

00:25:20.222 --> 00:25:23.246

물질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야.

00:25:23.346 --> 00:25:27.718

이거를 연구하고 사회경제사학을
만들어서 뭐를 비판했다?

00:25:27.818 --> 00:25:30.231

일본의 정체성 이론을
비판하는 거야.

00:25:30.331 --> 00:25:34.406

그러면 어떤 식으로 비판하는가.

00:25:34.506 --> 00:25:38.917

일본의 정체성 이론을 비판하려면
정체성 이론이 뭐였다?

00:25:39.017 --> 00:25:41.831

조선은 고대 노예제
사회에 멈춰 있었다.

00:25:41.931 --> 00:25:48.507

세상은 어디로? 고대 노예제를
거치고 중세를 거치고

00:25:48.607 --> 00:25:51.589

근대 사회로 이렇게 나왔는데.

00:25:51.689 --> 00:25:56.407

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
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

00:25:56.507 --> 00:25:58.991

이렇게 넘어왔는데 너희들만
여기 있는 거야.

00:25:59.091 --> 00:26:00.483
그러니까 미개한 거야, 이거잖아.

00:26:00.583 --> 00:26:03.793
그러면 이것을 깨부수는
방법이 뭐니?

00:26:03.893 --> 00:26:10.266
아니다, 우리 조선, 우리
역사도 고대 사회를 거쳐서

00:26:10.366 --> 00:26:14.958
중세, 근대로 넘어오고 있었다.

00:26:15.058 --> 00:26:18.756
그런데 너희들이 와서
오히려 자본주의,

00:26:18.856 --> 00:26:21.809
우리가 근대 자본주의
맹아론이 있거든.

00:26:21.909 --> 00:26:23.923
자본주의 싹이 막 나기
시작하는데 봤잖아.

00:26:24.023 --> 00:26:26.638
조선후기에 돈이면 다 되는
거, 그게 자본주의야.

00:26:26.738 --> 00:26:30.368
자본주의가 창궐하고 있는데
너네가 와서 훼방놓은 것이다.

00:26:30.468 --> 00:26:31.718
이렇게 가는 거야.

00:26:31.818 --> 00:26:37.764
다른 말로 돌려보면 우리도
영국, 프랑스, 러시아.

00:26:37.864 --> 00:26:42.603
이렇게 쭉 해서 영국,
프랑스처럼 쭉 진행되어왔다.

00:26:42.703 --> 00:26:45.526
다르지 않다는 거야.

00:26:45.626 --> 00:26:54.613
보편적인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서 조선도
흘러왔었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야.

00:26:54.713 --> 00:26:57.556
그러면서 일본의 정체성
이론을 비판합니다.

00:26:57.656 --> 00:27:03.083
한마디로 이 사회경제사학,
백남운은 이론은 뭐야?

00:27:03.183 --> 00:27:23.110

우리 조선의 역사도 일반적인,
보편적인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서

00:27:23.210 --> 00:27:27.378

순행되어왔었다, 이것을
방해한 게 너희다.

00:27:27.478 --> 00:27:34.546

이렇게 비판하면서 사회경제사학이
깨버립니다, 정체성 이론을.

00:27:34.670 --> 00:27:36.797

우리도 다를 바 없었다.

00:27:36.897 --> 00:27:39.080

이렇게 깨는 거야.

00:27:39.180 --> 00:27:42.122

그리고 세 번째 봐야 되는 거는

00:27:42.222 --> 00:27:44.532

더 들어가면 힘드니까
일단 이렇게만 할게요.

00:27:44.632 --> 00:27:48.875

사회경제사학, 정체성
이론을 격렬하게 비판하고

00:27:48.975 --> 00:27:50.589

붕괴시키고자 노력했다는 거.

00:27:50.689 --> 00:27:56.298

그리고 백남운 선생은 해방
이후에 남북을 당합니다.

00:27:56.398 --> 00:27:58.600

북한으로 납치를 당해요.

00:27:58.700 --> 00:28:04.935

그래서 뭐가 되냐면 김일성
대학의 국사학과 교수가 돼요.

00:28:05.035 --> 00:28:09.422

그다음에 30년대에
생겨난 사학을 볼게요.

00:28:09.522 --> 00:28:16.730

그게 실증주의사학이야.

00:28:22.130 --> 00:28:26.881

이 실증주의사학은
역사사관으로 뭐를 따랐냐면

00:28:26.981 --> 00:28:30.211

랑캐사관을 따릅니다.

00:28:30.311 --> 00:28:31.623

랑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?

00:28:31.723 --> 00:28:35.475

역사는 관점을 빼야 된다는 거야.

00:28:35.575 --> 00:28:42.753

오로지 fact 위주로 가야 된다,
이게 실증주의사학이 됩니다.

00:28:42.853 --> 00:28:47.617

오로지 fact, 신화, 설화,
자기 주장 빼야 된다.

00:28:47.717 --> 00:28:50.829

역사 자체를 뭐로 써야 된다?

00:28:50.929 --> 00:28:57.500

그냥 신문기사처럼 무미건조하게
fact로 구성을 해야 된다.

00:28:57.600 --> 00:29:00.004

이게 실증주의사학이 되는데.

00:29:00.104 --> 00:29:02.384

이 실증주의사학의 대표 주자는

00:29:02.484 --> 00:29:11.391

이병도와 그다음에 손진태와
같은 인물들입니다.

00:29:11.526 --> 00:29:13.967

여러분, 우리 한국사 교과서 있죠?

00:29:14.067 --> 00:29:17.976

그 틀을 누가 만들었는
줄 아십니까?

00:29:19.074 --> 00:29:21.345

해방 이후 이병도가 만들어요.

00:29:21.445 --> 00:29:24.379

이병도는 서울대 국사학과
교수가 됩니다.

00:29:24.479 --> 00:29:25.773

역사학과 교수가 되고요.

00:29:25.873 --> 00:29:32.809

우리나라 한국사의 시스템을 교과서의
시스템을 다 만든 게 이병도야.

00:29:32.909 --> 00:29:43.234

그런데 이 실증주의사학은 무조건 사실만을
명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.

00:29:43.334 --> 00:29:47.414

1899년 선생님이
자주 드는 예죠.

00:29:47.514 --> 00:29:58.398

일본에 의해서 경인선이 완공되었다.
됐니?

00:29:58.498 --> 00:30:00.822

fact잖아, 그냥.

00:30:00.922 --> 00:30:03.794

이게 실증주의사학이야,
이렇게 적는 거야.

00:30:03.894 --> 00:30:08.733

그런데 역사의 관점을 집어넣게
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.

00:30:08.833 --> 00:30:19.748

1899년 일본의 침략적인
의도로 경인선이 완공되었다.

00:30:19.848 --> 00:30:22.512

이거는 역사에 관점이 들어가있는 거지.

00:30:22.612 --> 00:30:24.895

이렇게 보셔도 됩니다.

00:30:24.995 --> 00:30:29.918

일제강점기잖아, 역사 연구하는 데
약간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.

00:30:30.018 --> 00:30:31.796

그러니까 오히려 뭐만
적어놓는 거야?

00:30:31.896 --> 00:30:34.700

그냥 fact만 적어놓는 거야.

00:30:34.800 --> 00:30:37.447

물론 이게 또 과학적이기도 하죠.

00:30:37.547 --> 00:30:42.848

그래서 나중에 이 양반들이 한국사
시스템을 만들기도 하니까.

00:30:42.948 --> 00:30:45.116

이게 실증주의사학입니다.

00:30:45.216 --> 00:30:46.288

여러분은 뭐가 제일 좋습니까?

00:30:46.388 --> 00:30:50.569

민족주의, 사회경제사학, 실증주의.

00:30:50.669 --> 00:30:54.270

아무래도 민족주의가 좀 호감이죠.

00:30:54.370 --> 00:30:59.617

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
더 알아둘 게 뭐냐면 이거야.

00:30:59.717 --> 00:31:01.497

이 단체입니다.

00:31:01.597 --> 00:31:11.492

조선사편수회, 이
단체를 알아둬야 돼.

00:31:11.592 --> 00:31:12.331

어렵지 않아요.

00:31:12.431 --> 00:31:14.643
이 조선사편수회는 뭐냐.

00:31:14.743 --> 00:31:18.814
조선의 역사를 편찬하는
편찬위원회야.

00:31:18.914 --> 00:31:23.002
조선의 역사를 편찬하는 편찬위원회.

00:31:23.102 --> 00:31:25.608
그러면 조선사 편수회에서
뭐를 만들었겠니.

00:31:25.708 --> 00:31:28.196
조선사를 만든 거야.

00:31:28.296 --> 00:31:30.476
앞서 이야기했었죠.

00:31:30.576 --> 00:31:34.915
한국통사를 박은식 선생이 만들었어요.
맞니?

00:31:35.015 --> 00:31:37.074
한국통사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

00:31:37.174 --> 00:31:40.871
일본이 조선의 역사를 만들어야
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.

00:31:40.971 --> 00:31:42.943
그러면서 위원회를 꾸린 거예요.

00:31:43.043 --> 00:31:45.801
그게 조선사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.

00:31:45.901 --> 00:31:50.247
그게 조선사편수회가 됩니다.

00:31:50.347 --> 00:31:55.171
그리고 나중에 조선사를 만들었겠지.

00:31:55.271 --> 00:31:57.615
여기에 들어와있는 사관이 뭐니?

00:31:57.715 --> 00:32:04.760
그게 우리가 지금까지
배웠던 식민사관이야.

00:32:04.860 --> 00:32:09.205
식민사관이 다 들어가있는
게 조선사입니다.

00:32:09.305 --> 00:32:12.703
누가 주관해서 만든 거야?
조선총독부가 주관해서 만든 겁니다.

00:32:12.803 --> 00:32:15.486

그리고 이 조선사를 편찬하고 나서

00:32:15.586 --> 00:32:21.579

조선사 편찬에 가담했던 이
위원들이 조선들이 중심이 돼서

00:32:21.679 --> 00:32:24.573

단체를 하나 만들어.

00:32:28.584 --> 00:32:30.827

청구학회예요.

00:32:30.927 --> 00:32:37.192

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청구학회는
민족단체야, 친일단체야?

00:32:37.292 --> 00:32:40.735

친일단체가 되는 거지.

00:32:41.881 --> 00:32:42.940

이해됐니?

00:32:43.040 --> 00:32:46.001

그래서 조선사편수회에서
조선사가 만들어진다.

00:32:46.101 --> 00:32:48.772

여기에 식민사관이 다
들어가있었다, 왜곡시킨 거지.

00:32:48.872 --> 00:32:55.349

그리고 여기 가담했던 애들이
만든 게 친일단체인 청구학회다.

00:32:55.449 --> 00:32:58.234

선생님이 왜 이렇게 거품을
무냐면 열받으니까.

00:32:58.334 --> 00:33:02.132

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.

00:33:02.232 --> 00:33:06.658

이병도, 해방 이후에
우리나라 한국사.

00:33:06.758 --> 00:33:11.885

여러분이 배우는 교과서의 시스템을
거의 이병도가 만들었다.

00:33:11.985 --> 00:33:16.906

이병도는 여기.

00:33:17.006 --> 00:33:19.861

여기 참여했던 인물입니다.

00:33:19.961 --> 00:33:22.431

그래서 이게 전부 이렇게 된 거야.

00:33:22.531 --> 00:33:25.936

그리고 이병도는 서울대 교수니까
그 체자들이 배웠을 거 아니니.

00:33:26.036 --> 00:33:27.905

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
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.

00:33:28.005 --> 00:33:31.357

그리고 서울대니까 수많은
사람들이 또 역사 교수가 되고

00:33:31.457 --> 00:33:35.279

그 제자들이 있고 이렇게
흘러가는 거지.

00:33:36.342 --> 00:33:38.957

이제는 많이 순화가
되기는 했습니다.

00:33:39.057 --> 00:33:42.773

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

00:33:42.873 --> 00:33:45.431

이게 우리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야.

00:33:45.531 --> 00:33:47.700

더 하면 열불나니까.

00:33:47.800 --> 00:33:49.344

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.

00:33:49.444 --> 00:33:54.354

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
조선어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.

00:33:54.454 --> 00:33:59.919

조선어 연구, 이거 한글.

00:34:01.405 --> 00:34:03.436

보도록 하겠습니다, 조선어.

00:34:03.536 --> 00:34:09.934

조선어는 한글과 관련돼서는
몇 개 있지는 않습니다.

00:34:10.034 --> 00:34:14.092

조선어 연구는 이렇게 가면 돼.

00:34:16.748 --> 00:34:28.823

먼저 나오는 게
국문연구소가 있었지.

00:34:28.923 --> 00:34:29.929

일단 적어놓을게요.

00:34:30.029 --> 00:34:38.530

그다음에 조선어연구회가 있고요.

00:34:38.630 --> 00:34:50.802

그다음에 1931년에 만들어진
건데 조선어학회가 있습니다.

00:34:52.027 --> 00:34:54.804

이게 한글 연구와 관련된 내용인데

00:34:54.904 --> 00:34:56.584

용어가 좀 다르죠.

00:34:56.684 --> 00:34:59.851

국문연구소, 우리나라 문자야.

00:34:59.951 --> 00:35:04.721

그러니까 이거는 1900년대야,
일제강점기 전입니다.

00:35:04.821 --> 00:35:09.287

반면에 1920, 21년에
만들어진 조선어연구회 있지?

00:35:09.387 --> 00:35:12.675

바뀌었네, 국문에서
조선어로 바뀌었죠?

00:35:12.775 --> 00:35:16.587

일제강점기니까 명칭이 바뀐 거예요.

00:35:16.687 --> 00:35:17.877

그러면 이거는 배웠어.

00:35:17.977 --> 00:35:24.346

국문연구소에서는 지석영,
주시경 선생이 뭐를 했니?

00:35:24.446 --> 00:35:29.156

국어 문법을 만들었어요.

00:35:29.256 --> 00:35:30.171

이거로 끝이고요.

00:35:30.271 --> 00:35:35.244

그런데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 1920년대에
조선어연구회가 만들어집니다.

00:35:35.344 --> 00:35:38.932

여기서 이게 나타나는 거야.

00:35:39.032 --> 00:35:48.336

가갸날과 그다음에 잡지 한글이
이렇게 편찬이 됩니다.

00:35:48.436 --> 00:35:49.651

조선어연구회에서.

00:35:49.751 --> 00:35:53.104

가갸날 의미 알겠죠? 한글날이야.

00:35:53.204 --> 00:35:55.781

그다음에 한글, 잡지 한글 편찬.

00:35:55.881 --> 00:35:59.673

그리고 이 조선어학회는
상당히 중요해.

00:35:59.773 --> 00:36:05.997

조선어학회는 뭐냐면 조선어연구회가
확대 개편된 겁니다.

00:36:06.097 --> 00:36:09.558
이게 인문단체가 되겠지.

00:36:09.658 --> 00:36:15.094
그런데 이 조선어학회에서는 뭐를
하려고 했냐면 이것을 합니다.

00:36:15.194 --> 00:36:21.062
표준어 제정, 우리
문자와 관련해서.

00:36:21.162 --> 00:36:26.444
그다음에 외래어 표기 등.

00:36:26.544 --> 00:36:29.206
그리고 하나 더 만들려고 해.

00:36:29.306 --> 00:36:36.874
그게 뭐냐면 우리말 큰사전입니다.

00:36:40.040 --> 00:36:46.434
우리말 큰사전, 이것을
원고를 다 모아놓았습니다.

00:36:46.534 --> 00:36:54.932
다 만들었어, 이제 편찬만 하면
되는데 이게 편찬하지는 못했습니다.

00:36:55.032 --> 00:36:56.948
편찬은 실패하게 돼요.

00:36:57.048 --> 00:36:58.671
왜 실패하게 되었냐?

00:36:58.771 --> 00:37:03.540
이 조선어학회가 우리말
큰사전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

00:37:03.640 --> 00:37:05.429
일본 애들이 탄압을
해버린 거예요.

00:37:05.529 --> 00:37:08.604
그래서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.

00:37:08.704 --> 00:37:12.539
1940년대가 되면 일본의
방해가 있었다는 건데

00:37:12.639 --> 00:37:19.420
조선어학회 간부들을 치안유지법으로,

00:37:21.228 --> 00:37:24.906
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를
색출하는 법률이야.

00:37:25.006 --> 00:37:30.216
치안유지법으로 조선어학회 인사들을

다 잡아들여버린 거예요.

00:37:30.316 --> 00:37:35.639
그래서 우리말 큰사전은 편찬되지 못했습니다, 다 만들어놓고.

00:37:35.739 --> 00:37:38.757
그러면 언제 사전이 만들어졌냐.

00:37:38.857 --> 00:37:40.399
해방 이후입니다.

00:37:40.499 --> 00:37:48.256
해방 이후에 한글학회에서 만들어진 게 큰사전이야.

00:37:48.356 --> 00:37:52.549
그리고 우리말 큰사전,
이거 만드는 데 있어서

00:37:52.649 --> 00:38:02.819
조선어학회는, 그러니까 이게 40년대가 될 거야.

00:38:02.919 --> 00:38:07.380
그러면 한 30년 동안 우리 문자를 못 썼어요, 탄압당해서.

00:38:07.480 --> 00:38:09.328
그러면 우리 문자는 잊혀졌겠네.

00:38:09.428 --> 00:38:10.840
일본어를 쓰고 있었겠네.

00:38:10.940 --> 00:38:15.511
일본 문자를 쓰고 있었겠지, 뺄 거 아니니.

00:38:15.611 --> 00:38:16.981
우리 문자는 없어지고 있었습니니다.

00:38:17.081 --> 00:38:22.840
그래서 조선어학회에서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민중들에게 호소를 해요.

00:38:22.940 --> 00:38:31.541
집에 있는 한글 서찰, 책, 잡지 이런 게 있으면 보내주세요.

00:38:31.641 --> 00:38:35.090
그러면 우리가 다 연구해서 이런 사전을 만들고

00:38:35.190 --> 00:38:39.618
우리 문자를 보호하겠습니다, 보호 계승하겠습니다.

00:38:39.718 --> 00:38:42.609
그래서 민중들이 한글도 잘 못 써.

00:38:42.709 --> 00:38:45.573

그런데 막 이렇게 주변에
있을 거 아니니.

00:38:45.673 --> 00:38:49.816
예전에 있었던 것들, 그런 것들을
조선어학회에 다 보내준 거야.

00:38:49.916 --> 00:38:53.654
그래서 겨우겨우 만든
거예요, 편찬은 못했지만.

00:38:53.754 --> 00:39:00.670
만약에 이런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
일본어 쓰고 있을 겁니다, 100%.

00:39:02.565 --> 00:39:05.726
그래서 이 조선어학회는
조선어학회 사건으로

00:39:05.826 --> 00:39:11.145
결국 편찬을 하진 못했다.

00:39:11.245 --> 00:39:13.822
편찬은 해방 이후에
한글학회 편찬되었다.

00:39:13.922 --> 00:39:16.395
여기까지 민족문화와
관련된 내용 봤고요.

00:39:16.495 --> 00:39:21.574
그다음에 우리가 종교와
관련돼서 좀 봐야 돼요.

00:39:21.674 --> 00:39:27.311
종교와 관련돼서 봐야 되는데
먼저 찜뭇하게 보면 돼.

00:39:27.411 --> 00:39:31.221
개신교.

00:39:31.321 --> 00:39:34.510
그다음에 천주교.

00:39:36.447 --> 00:39:39.198
원불교.

00:39:42.281 --> 00:39:46.828
그다음에 대종교.

00:39:48.988 --> 00:39:51.586
천도교.

00:39:53.392 --> 00:39:54.908
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39:55.008 --> 00:39:58.859
먼저 개신교에서는 뭐를
했냐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

00:39:58.959 --> 00:40:01.169

신사참배거부운동 있죠?

00:40:01.269 --> 00:40:05.068

신사참배거부운동을
전개하기도 합니다.

00:40:05.168 --> 00:40:14.997

천주교, 천주교는 일제강점기 때
의민단이라는 무장단체를 꾸리기도 해요.

00:40:15.097 --> 00:40:22.277

그다음에 원불교는 이게
박중빈이라는 사람이 만듭니다.

00:40:22.377 --> 00:40:25.547

그리고 여기서 새생활운동을
전개하기도 해.

00:40:25.647 --> 00:40:28.126

왜냐하면 당시 불교가,

00:40:28.226 --> 00:40:31.888

불교 빼버렸네, 불교.

00:40:31.988 --> 00:40:36.431

당시 불교가 친일불교가
많이 돼버렸거든.

00:40:36.531 --> 00:40:40.833

뭐 때문이냐면 사찰령때문이었어요.

00:40:40.933 --> 00:40:43.446

사찰이 절이잖아요.

00:40:43.546 --> 00:40:45.907

절에서 제일 높은
사람이 주지스님인데,

00:40:46.007 --> 00:40:50.857

주지스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은
조선총독에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.

00:40:50.957 --> 00:40:55.795

그래서 불교가 상당히
친일화돼버려요.

00:40:55.895 --> 00:40:57.621

그래서 이 불교를 개혁하자,

00:40:57.721 --> 00:41:05.686

그게 만해 한용운 선생의
불교유신론이었지.

00:41:05.786 --> 00:41:09.072

그래서 여기서 파생돼서
원불교가 나오는데

00:41:09.172 --> 00:41:12.256

이 원불교는 새생활운동을
전개하기도 한다.

00:41:12.356 --> 00:41:15.293

근검절약, 저축 이런 운동이야.

00:41:15.393 --> 00:41:17.748

그리고 원불교는 상당히 큼니다.

00:41:17.848 --> 00:41:22.529

특히 전라북도에서는
원불교가 어마어마해요.

00:41:22.629 --> 00:41:29.615

원불교에서 학교도 만들었는데 그게
한의학으로 유명한 원광대학교.

00:41:29.715 --> 00:41:32.909

그쪽이 원불교 재단이라고
보면 되겠습니다.

00:41:33.009 --> 00:41:34.412

상당히 교세가 커요.

00:41:34.512 --> 00:41:36.971

그다음에 대종교,
이게 민족 종교예요.

00:41:37.071 --> 00:41:40.257

대종교는 누구를 섬겼는가.

00:41:40.357 --> 00:41:44.162

우리 민족의 근원인 단군입니다.

00:41:44.262 --> 00:41:47.833

그리고 이런 대종교 인사들은
단군을 숭배했기 때문에

00:41:47.933 --> 00:41:53.479

가장 먼저 탄압당해서 해외에
무장기지를 만들어서

00:41:53.579 --> 00:41:56.474

저항을 했던 인물들이 많아요.

00:41:56.574 --> 00:41:58.279

특히나 김좌진 장군이 있지.

00:41:58.379 --> 00:42:01.393

김좌진 장군이 대종교 인사였습니다.

00:42:01.493 --> 00:42:04.155

그래서 청산리대첩까지 가는 거야.

00:42:04.255 --> 00:42:09.113

그다음에 천도교는
동학이 바뀐 거잖아.

00:42:09.213 --> 00:42:10.548

동학을 누가 바꿨다?

00:42:10.648 --> 00:42:15.783

손병희 선생이 동학을
개칭한 게 천도교.

00:42:15.883 --> 00:42:19.547

그래서 3.1운동에도
참여를 하게 됐죠.

00:42:19.647 --> 00:42:22.684

이런 종교 이야기,
이렇게 살펴봤고요.

00:42:22.784 --> 00:42:29.344

그다음에 해외 동포와
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.

00:42:29.444 --> 00:42:34.128

그러면 지도를 하나
그려봐야 되겠네.

00:42:39.191 --> 00:42:42.290

이쪽에 중국도 있죠.

00:42:42.390 --> 00:42:45.840

중국 상하이 쪽, 이렇게
보면 되겠는데.

00:42:45.940 --> 00:42:47.784

먼저 여기입니다.

00:42:47.884 --> 00:42:49.332

이게 남만주야.

00:42:49.432 --> 00:42:54.761

남만주에 삼원보가 건설이 됩니다.

00:42:54.861 --> 00:42:57.145

이거는 신민회 할 때 배웠지?

00:42:57.245 --> 00:43:02.231

신민회 인사들이 여기에
터를 잡게 되는 거죠.

00:43:02.331 --> 00:43:05.540

그때 나타났던 게
이시영 형제들이죠.

00:43:05.640 --> 00:43:08.816

그리고 이 삼원보에서는
자치기구를 만들었으니

00:43:08.916 --> 00:43:16.256

그게 경학사와 부민단,
이런 것들도 있었지.

00:43:16.356 --> 00:43:18.596

그래서 한인타운이
여기 생겨났다는 거.

00:43:18.696 --> 00:43:20.602

그리고 여기서 학교가 만들어졌으니

00:43:20.702 --> 00:43:24.860

그게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였다.

00:43:24.960 --> 00:43:27.960

그다음에 여기 연해주.

00:43:28.060 --> 00:43:33.526

이 연해주는 최대 한인타운이었다.

00:43:33.626 --> 00:43:47.148

그래서 여기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
1919년에 만들어지는데

00:43:47.248 --> 00:43:52.037

처음에 연해주에서는 자치기구로
이런 단체들이 있었어.

00:43:52.137 --> 00:43:57.174

권업회, 성명회.

00:43:58.633 --> 00:44:00.688

이런 기구들이 있었습니다.

00:44:00.788 --> 00:44:03.772

그리고 이 대한국민의회는
선생님이 이야기했다?

00:44:03.872 --> 00:44:07.946

이게 나중에 대한민국
임시정부로 합쳐진다는 거.

00:44:08.046 --> 00:44:14.852

그다음에 여기 간도지방인데,

00:44:14.952 --> 00:44:18.713

여기를 북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.

00:44:18.813 --> 00:44:25.277

북간도에는 뭐가 있었냐,
중광단이 있었다.

00:44:25.377 --> 00:44:29.997

이 중광단은 중요한 게
대종교 인사들이야.

00:44:30.097 --> 00:44:35.224

대종교 인사들이 만든
게 중광단입니다.

00:44:35.324 --> 00:44:38.490

왜? 대종교는 단군을 숭배하면서
가장 먼저 탄압당했잖아.

00:44:38.590 --> 00:44:41.509

그래서 해외로 넘어간 게 저쪽이야.

00:44:41.609 --> 00:44:43.344

북간도 쪽입니다.

00:44:43.444 --> 00:44:45.517

대종교 인사들이 중심이 되었다.

00:44:45.617 --> 00:44:47.282

이렇게 중광단을 만들고요.

00:44:47.382 --> 00:44:51.351

이 중광단이 이후에
변화가 되는 거야.

00:44:51.451 --> 00:44:59.163

그 변화가 되는 게 북로군정서군으로
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.

00:44:59.263 --> 00:45:02.922

이 북로군정서군의 짱이 누구였다?

00:45:03.022 --> 00:45:06.330

김좌진이 되겠고.

00:45:06.430 --> 00:45:11.540

그리고 이 북로군정서군이 중심이
되어서 승리를 한 전투가

00:45:11.640 --> 00:45:18.848

1920년 그 유명한
청산리대첩이 된다는 거지.

00:45:18.948 --> 00:45:19.515

이렇게 봤고요.

00:45:19.615 --> 00:45:25.496

그다음에 중국 쪽에는
상하이를 기반으로 해서

00:45:25.596 --> 00:45:29.340

상하이에 민족 인사들이
활동하고 있었고.

00:45:29.440 --> 00:45:34.824

그다음에 미주 지역으로 가겠습니다.

00:45:34.924 --> 00:45:39.173

이 미주 지역은 하와이에
사탕수수 농장에

00:45:39.273 --> 00:45:41.799

우리 한인들이 많이
거주하고 있었죠.

00:45:41.899 --> 00:45:44.382

하와이로 많이 이민을
갔었잖아, 대한제국 때.

00:45:44.482 --> 00:45:48.208

하와이도 있고 또한
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도

00:45:48.308 --> 00:45:53.194

미주 지역에서도 한인타운이
많이 성립이 되는데.

00:45:53.294 --> 00:45:56.367

여기서 만든 게 이거야.

00:45:56.467 --> 00:46:06.879

대한민국민회가 이렇게
결성되기도 합니다.

00:46:06.979 --> 00:46:07.496

비슷하죠?

00:46:07.596 --> 00:46:09.250

여기는 대한국민의회.

00:46:09.350 --> 00:46:11.930

여기는 대한민국민회야.

00:46:12.030 --> 00:46:13.239

이렇게 보면 돼.

00:46:13.339 --> 00:46:16.944

LA, LA 한인타운
이렇게 생각할까?

00:46:17.044 --> 00:46:19.507

미국이니까 LA 한인타운.

00:46:19.607 --> 00:46:24.693

여기에서 대한민국민회를 주도했던
게 안창호 선생, 이렇게 있지만

00:46:24.793 --> 00:46:26.558

중요한 사람은 이승만입니다.

00:46:26.658 --> 00:46:32.551

이승만이 여기에서 주도를 합니다.

00:46:32.651 --> 00:46:37.743

이승만, 박용만 이렇게 주도를
하는데 문제는 싸워요.

00:46:37.843 --> 00:46:40.471

이승만과 박용만이 계속 싸웁니다.

00:46:40.571 --> 00:46:42.687

그래서 박용만이 뛰어나와.

00:46:42.787 --> 00:46:50.386

그래서 만든 게
대조선국민군단입니다.

00:46:56.382 --> 00:46:57.898

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.

00:46:57.998 --> 00:46:58.983

이게 이승만,

00:46:59.083 --> 00:47:03.551

여기는 박용만.

00:47:05.170 --> 00:47:08.979

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

00:47:09.079 --> 00:47:12.856

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민족

문화의 발달과 관련된 사항

00:47:12.956 --> 00:47:15.394

이렇게 살펴봤습니다.

00:47:15.494 --> 00:47:17.820

어떻습니까? 역사 공부 더
열심히 하셔야 되겠죠?

00:47:17.920 --> 00:47:20.650

나중에 대학 가서 배낭여행 가거나

00:47:20.750 --> 00:47:25.222

외국 애들이 물어보는 거는
케이팝이 아니라니까.

00:47:25.322 --> 00:47:26.749

물론 케이팝도 물어볼 거야.

00:47:26.849 --> 00:47:31.093

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뭐를
얼마나 대화를 하겠습니까?

00:47:31.193 --> 00:47:36.873

정말 물어보는 거는 우리의 문화,
그다음에 우리의 역사야.

00:47:36.973 --> 00:47:39.726

그래서 역사 공부 좀 심도
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

00:47:39.826 --> 00:47:41.265

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

00:47:41.365 --> 00:47:43.361

여러분, 안녕히 계십시오.